

日本の 석유산업규제 완화

日本은 석유산업 규제완화 조치로서 휘발유 생산량 규제제도(PQ)와 수요기 전 등유비축의무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규제조치로서 설비의 기본인 상압증류설비의 허가제, 정유회사 설비의 허가제, 생산계획의 제출제, 주유소의 등록제 등이 있다. 그 중 설비의 허가제(석유정제 회사설립의 허가제 포함)는 특정 석유제품 수입 잠정조치법(이하 특석법)과 함께 업계 자체를 규제한 다기보다 업계를 보호하는 조치이다. 상압증류 설비의 경우 정유회사(또는 그 그룹)의 가동률이 80%를 넘으면 증설이 우선적으로 허가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에게는 규제조치라고 볼 수 없고 특석법은 처음에 석유기업이외의 기업이 석유제품 수입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대신 석유기업은 일정량을 의무로 수입하도록 하였지만, 겉프위키시 해외의 석유제품이 부족하고 가격도 폭등하기도 하여 수입의무도 어느 사이엔가 소멸되었다. 이 때문에 특석법은 지금 일종의 수입억제의 의미를 띠고 있다.

또 석유산업에의 신규참입은 매우 어렵다는 것도 변하지 않았다. 규제완화에 따라 업계내부의 경쟁이 다소 격심하지 않은 것이 기존기업외의 신규 참입에 따른 경쟁이 없기 때문이다.

특석법이 '95년에 폐기되면 수입이 자유롭게 되고 사정도 크게 변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우선 특석법이 폐기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만일 폐기된다고 해도 비축의무, 품질준수의무 등이 부과되어 실제적으로 석유기업이 관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러한 규제와 협조체제는 정부와 석유업계가 관련된 사항으로 석유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日本의 일반적인 행정제도도 그렇기 때문이다.

규제완화 조치의 하나인 주유소 건설의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규제시설과 같이「사전상담제」를 존속시켰다. 남긴 이유는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이유에서지만 실태는 등록할 때 파악이 가능하므로 건설계획의 단계에서 통산성에 보고한다는 「事前상담제」는 하나의 규제제도가 되는 것이다. 만일 주유소 난립이라는 사태가 벌어지면 통산성이 이 사전 상담

제를 무기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원유처리량 규제 제도의 폐지도 똑같은 상황에 있다. 원유처리량만을 생각하면 원유는 무제한 처리해도 되고 가동률이 80%를 초과하여 설비증설 허가를 얻고 난 후 대량생산, 대량의 판매작전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없도록 구조가 이미 짜여져 있다. 석유업법에 따라 각사가 매년 석유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석유 생산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생산계획을 제출한 이상 계획에 따라 생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이 생산계획이 전체 석유공급계획에 대조하여 큰 차이가 있으면 통산성은 변경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 변경 명령에 석유기업이 따르지 않으면 가동률이 100%를 초과한다 해도 증설허가는 받을 수 없다.

석유수요의 증가

석유수요는 환경이나 대체에너지의 동향과 관계없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증가는 휘발유와 경유라는 수입용 연료가 중심이 되고 있다. 예전부터 석유수요의 반이상을 차지하였던 B-C유의 수요보다 이제는 휘발유의 수요가 크다. 그 휘발유의 수요가 아직까지는 경유 수요보다 많다. 경유 수요는 '92년 4천만KI를 넘고 '93년에는 B-C유를 상회한 후 4, 5년이 지난 다음에는 휘발유 수요에 육박할 것이다. 그리고 휘발유와 경유의 증가가 석유전체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규제완화와 규제조치의 존속

이에 따라 규제완화의 최대 난관이라고 보여진 「원유처리량 규제」의 폐지가 용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설비의 인·허가제가 유효한 상태이며 석유업법이라는 큰 규제제도가 있는 만큼 통산성은 日本 석유시장의 규제완화를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규제제도로서 휘발유 판매업법이 있다. 대대적으로 규제완화 정책을 선전했지만, 세가지 법률(석유업법, 특석법, 휘발유 판매업법)을 폐기한 것은 아니다. 상압증류 설비는 허가제이고, 신규 참입도 금지되어 있다. 석유제품

의 수입도 사실상 석유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주유소도 일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등록되지 않아 영업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주유소가 많이 건설되어 경쟁이 격심하게 되는 장소는 「지정지구」라고 하여 3년간은 주유소를 건설할 수 없는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규제완화라는 것은 통산성이 법률에 기초하지 않는 규제-행정지도-를 없앤다는 것으로 법률에 따른 규제는 그대로이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규제완화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폐지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정부가 “법률”이라는 정부로서의 최대의 근거를 잃으면 소관관청의 권한을 크게 축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석유산업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래 의미의 규제완화는 이룩할 수 없다.

소매업 경시 경향의 변화

규제완화는 「완화」이지 「폐지」는 아니지만, 휘발유 생산 규제의 폐지, 주유소 건설의 자유화, 거기에 원유처리와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표면상 석유산업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부가 자유화 되는 것이다. 그 자유화를 환영하여 석유업계는 「휘발유 생산제의 폐지도, 주유소 자유화도 혼란없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원유처리량 규제제도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각사가 균형된 생산을 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이 혼란될 이유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확실히 현재의 시장을 볼 때 원유처리량 규제의 폐지에 따른 시장혼란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상이한 조건이 맞물린 것 뿐이고 업계 자체가 혼란스럽지 않은 시장을 만든 것은 아니다.

日本 석유업계가 제일 처음 판매한 것은 등유이지만, 그 폭발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보다도 軍需덕택이며 또 군수와 관계가 깊은 중공업이다. '45년 폐전으로 군수는 소멸되었지만, 석유산업 성장의 유일하고 최대의 힘은 중공업 및 화학공업이었다. 그 때문에 소매를 한단계 무시하는 습성이 있다.

두차례의 석유위기가 끝나고 소매업계가 중요하게 되었어도 여전히 무시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실제로 석유제품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 요인이다. 그러나 월결정방식의 채택으로 걸프 사태시부터 시장의 안정을 가져왔고 소매업 무시경향을 불식시키고 있다.

기타 시장관련 문제

석유시장에는 아직도 논쟁 중인 문제가 많다. 셀프서비스 주유소 문제, P. P. 카드(Prepaid card) 문제, 계열문제, 원매카드 문제 등이 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두고 규제완화, 자유화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日本에서 셀프서비스 주유소의 등장은 가격경쟁이 극심

하게 되고, 또 일손부족과 종업원의 질저하에 따라 일반주유소가 영업을 포기하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日本에서는 아직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손부족이라든가 손님에 따른 가격 차별이 없어 셀프서비스 주유소가 나온 점도 있다.

日本에 최근 건설되고 있는 대형 주유소는 언제든지 셀프서비스 주유소에 대응할 수 있는 주유소가 대부분이다. 판매업자 중에도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것을 하려는 사람도 많다. 소비자 중에서도 셀프서비스 주유소는 짝가적으로 판매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혹은 어설플뿐 주유원이 차를 손보는 것보다 휘발유만 파는 쪽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결론은 日本에 셀프서비스 주유소를 도입하면 주유소 업계는 서비스기능을 잃어 격심한 시장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소방법이 대폭 완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셀프서비스 주유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해도 규제완화의 분위기를 타서 강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P. P. 카드 문제이다. 이것도 그대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P. P. 카드가 할인 판매되는 결과 실질적으로는 석유제품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 P. P. 카드가 어느만큼 수익을 줄 것인가도 의문이다. 주유소가 그것을 팔아 치우지 못하면 금융업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주유소가 그것을 상품 교환권으로 배부한 다음에 금융업자에게 흘러 들어가면 그만큼 경영압박을 받게 된다. 이점을 잘 개선하지 않으면 P. P. 카드 때문에 많은 주유소가 폐업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P. P. 카드는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석유회사의 연간 판매량이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해도 P. P. 카드로 무한하게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 회사만이 日本 연간 소비량 전부를 판매하는 것이 책상 위에서는 가능하다. 어쨌든 향후 많은 석유기업이 P. P. 카드를 취급할 것이다. 또 허가된 카드수가 적어 석유기업의 형편에 좋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석유시장에서 제일 큰 문제는 계열문제이다. 판매업자는 한 석유회사 밖에 특약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의 주유소는 하나의 석유회사의 석유제품 밖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마치 석유업계의 규칙처럼 말해지고 있다. 만약 그것이 석유업계의 규칙이라고 해도 석유기업 자체가 그 규칙을 준수할 지 의문이다. 마땅히 원매가 주유소나 판매업자를 자기 고객으로 만드는 것은 계열문제와 관련이 있다. 규제완화 후의 석유시장에서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계열문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순간석유정책〉

泰國의 석유정책과 석유산업

1. 경제개황

泰國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아직도 농업인구가 총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업화가 진전되어 GDP증가율은 연 10%를 넘고 있다. 그래서 공업부문의 발전에 필수요소인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2. 석유정책

(1) 에너지 석유기본정책

석유의 기본정책은 ①국산 및 수입석유의 공급의 최대한 확보 ②소비효율의 개선 ③경제적인 연료 개발 ④민간투자 의 장려이다.

(2) 석유규제와 규제완화

정부는 석유개발로부터 소매에 이르기까지 모두 규제하

고 있다.

• 석유 및 석유제품

정부는 주로 국영 석유회사인 PTT를 통하여 석유의 수단 계에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참여도 일정 한도 내에서 허가하고 있다. 민간회사는 석유개발 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통상 PTT는 국내 생산석유와 천연가스의 우선 구입권을 지니고 있고 원유 및 제품수입을 PTT, 국영 BCP 및 민간회사가 하고 있다. 도매가격의 상한은 규제되고 있지만 소비자가격 상한은 '91년 6월 폐지되었다. PTT는 국영 전력인 EGAT등 국가기관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지니고 있고, LPG 판매도 특권이 인정되고 있다.

• 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은 민간주도이지만 정부는 PTT를 통하여 천연가스, LPG의 유통을 지배하고 있다. 앞으로도 석유화학 공업의 육성 때문에 국가관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표-1〉 泰國의 주요 경제지표

	1980	1985	1987	1988	1989
명목 GDP (億 US 달러)	335	374	487	596	694
1인당 GDP (US 달러)	719	723	909	1,092	1,252
실질 GDP 증가율 (%)	7.6	3.5	9.5	13.2	12.2
소비자물가상승률 (%)	9.7	2.4	2.5	3.8	5.4
완전실업률 (%)		2.6	2.8	2.5	1.0
수 출 (億 US 달러)	64	71	116	158	198
수 입 (億 US 달러)	84	84	121	179	228
경상수지 (億 US 달러)	-21	-15	-4	-17	-25
외화준비 (億 US 달러)	30	30	52	71	106
대외채무 (億 US 달러)	62	147	175	179	194

〈자료〉 IMF IFS, Bank of Thailand and Quarterly Bulletin

천연가스는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음 이유로 공급이 부족하다. ①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용 수요증가, ②석유화학 공장의 조업개시에 따른 수요급증, ③정부와 생산자간 가격논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가스사용을 장려하고 있지 않으며 비싼 수송비 때문에 가격도 비싸 소비자도 선호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공급증대를 위해 탐광 및 개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외에 삼만에서 말레이시아와의 공동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도 구상하고 있다. 콘텐세이트 사용은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이 수출되고 있다.

(3) 비축제도

정부는 정제회사 및 연간 10만톤 이상의 판매업자에게 비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년의 수입, 경제, 구입량에 최저비축율을 곱한 것이 비축량이 된다. 현재 비축수준은 15일분 이하에 지나지 않지만 '93년에는 18일분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ASEAN과의 협정이 있어 대규모 비축이 필요하지 않다.

(4) 환경정책

환경문제는 다루는 기관이 분산되어 있고, 아직 심각한 현안문제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외국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국내 민간부문의 개발을 중시하기 때문에 강력한 환경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

석유제품의 규격강화는 이미 이루어졌고 차량의 배기가스로 방콕주변의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정부는 신규 차량에 대한 촉매전환장치 장착을 검토하고 있다.

3. 에너지수급

에너지 매장량은 <표-2>와 같으며 자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원유생산은 적어 2000년 전후에는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는 가장 중요한 상업 에너지가 되고 있으나 역시 매장량이 작아 '90년대 후반에 생산이 피크에 달하고 2000년 전후에 일찍 감소경향을 보일 것이다. 콘텐세이트 생산은 천연가스와 함께 되고 있으나 생산량은 작다.

<표-2> 에너지 매장량

	확 인 매 장 량	예 상 매 장 량	計
褐 炭(백만 톤)			
-MAE MOH	820.9	-	820.9
-KRA BI	83.6	-	83.6
-LI	28.0	-	28.0
기 타	17.7	-	17.7
水 力(MW)			
國內 프로젝트	-	-	10,586.0
國際 프로젝트	-	-	15,637.0
天然가스(10億 입방피트)			
해 상	6,261.6	7,447.1	13,708.7
陸 上	648.6	1,198.0	1,846.6
콘텐세이트(백만배럴)			
해 상	150.5	87.6	238.1
陸 上			
오일셰일(백만톤)			
-TAX PROVINCE	-	-	-
原 油(백만배럴)			
-LAN KRABUE(陸上)	58.2	22.9	88.1
-NANG NUAN (해상)	22.0	-	22.0

<자료> NEA

1차 에너지중 석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수력의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석 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수 력
1981	34.8	12.6	1.1	3.1
1985	29.7	8.5	11.9	3.2
1989	30.2	14.1	14.1	3.5

(1) 천연가스 개발현황과 전망

(표-4) 泰國의 천연가스 수급전망

(단위 :백만 ft³/D)

	1990	1995	1996	2000
생 산	550	960	1,010	1,010
수 입	-	-	-	250
소 비	765	1,667		1,975

〈표-3〉 泰國의 천연가스 수급실적

(단위 : 백만ft³)

	1982	1983	1984	1985	1986	1990
생 산	47,141	56,732	85,506	132,275	127,765	230,261
소 비	47,445	55,776	83,330	105,925	97,393	183,663

〈표-5〉 泰國의 원유생산 추이

(단위 : 천b/d)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Fang(陸上)	0.3	0.5	0.8	0.9	1.1	1.2	1.1	1.2	1.2
Sirikit(陸上)		6.1	13.9	20.8	20.1	16.7	17.9	20.2	22.8
Nang Nuan(해상)							1.3		
計	0.3	6.6	14.7	21.7	21.2	17.9	20.3	21.4	24.0

〈자료〉 Mineral Resources Department의 자료에서 환산

4. 석유수급

(1) 원유수급

'90년 원유 및 콘덴세이트 생산량은 각각 2.4만B/D, 2만 B/D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원유 대부분이 수입되었다. 콘덴세이트는 '90년에 2만B/D 생산되어 그 중 1.7만 B/D가 수출되었다.

(2) 석유제품 수급

석유제품 수급은 〈표-8〉과 같다. 정제능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여 상당량의 석유제품이 수입되고 있다. 수요는 연 13.3%('85-'90)의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87-'90년

〈표-6〉 원유 및 콘덴세이트 생산전망

	確認埋藏量 (百萬배럴)	1991 (千 b/d)	1996 (千 b/d)
해 상			
UNOCAL	137	19.6	19.6
THAI SHELL	22	-	-
計	13	-	-
陸 上			
THAI SHELL	57	22.5	22.5
BP	4	1.2	2.5
기 타	6	-	-
計	240	43.4	44.7

기간중 17.5%의 증가를 보였다. 〈표-9〉는 '91년 이후 수요전망을 보여 주는데 급격한 증가율이 예상된다.

〈표-7〉 콘덴세이트 생산량

(단위 : 천b/d)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Baanpot		0.1	1.7	1.0		0.4	2.3	1.9	1.2
Erawan	5.6	6.6	6.5	7.1	6.7	6.4	6.3	7.3	7.9
Kaphong								0.6	2.6
Plathong				3.3	4.2	3.6	3.9	3.2	1.5
Satun				2.9	3.4	4.8	5.4	5.4	6.0
South Satun									0.5
計	5.6	6.7	8.2	14.3	14.3	15.2	17.9	18.4	19.7

〈자료〉 Department of Mineral Resources의 자료에서 환산

〈표-8〉 泰國의 석유수급

(단위 : 천b/d)

	L P G	휘발유	제트유	燈油	경유	重油	計
국내생산	1985	15.2	35.2	17.7	2.8	57.9	165.4
	1989	15.3	46.5	28.4	2.2	72.6	225.1
	1990	23.6	52.3	45.1	3.5	60.5	246.5
수입	1985	4.1	0.7	2.8	0.2	36.8	48.3
	1989	12.2	10.7	8.4		74.4	109.9
	1990	9.1	11.4	8.7		95.6	154.2

수 출	1985			0.8					0.8
	1989		0.1				0.1		0.2
	1990		0.2				0.2		0.4
소 비	1985	19.6	36.0	21.3	2.6	95.2	39.4	214.1	
	1989	27.6	57.3	37.4	2.1	146.8	63.3	334.7	
	1990	32.4	63.5	40.7	2.1	169.0	91.6	399.3	

〈자료〉 NEA/Oil & Thailand 1990의 자료에서 환산.

〈표-9〉 석유제품 수요 및 국내공급 전망

(단위 : 천b/d)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需 要										
國營電力 EGAT 이외										
L P G	31.60	34.33	37.24	40.32	43.63	47.25	50.68	54.28	58.09	62.11
휘 발 유	67.02	72.81	78.87	85.03	90.97	97.30	103.67	109.96	116.03	121.71
등 유	2.12	2.12	2.12	2.12	2.12	2.12	2.12	2.12	2.12	2.12
제 트 유	43.19	46.96	51.03	55.42	60.16	65.28	70.12	75.31	80.86	86.78
경 유	188.01	216.60	244.98	271.90	298.97	326.45	352.98	377.90	400.56	420.31
중 유	47.75	49.75	51.96	54.35	63.31	70.5	76.96	85.93	93.31	101.96
小 計	379.69	422.57	466.20	509.14	559.16	608.90	656.53	705.50	756.97	809.99
EGAT										
重 油	46.53	45.25	76.32	87.94	101.00	117.96	102.43	85.13	93.87	107.70
合 計	426.22	467.82	542.52	597.08	660.38	726.86	758.96	790.63	850.84	917.69
국내공급										
L P G	26.90	28.00	29.60	34.26	46.89	51.82	62.05	63.87	64.33	64.81
-정유공장	7.90	9.00	10.60	13.62	24.89	29.82	32.05	33.87	34.33	34.81
-가스 Plant	19.00	19.00	19.00	21.00	22.00	22.00	30.00	30.00	30.00	30.00
나 프 타	-	-	6.54	36.74	72.31	81.52	79.61	77.80	74.22	66.70
휘 발 유	57.00	66.60	78.36	80.47	107.64	118.48	123.63	128.01	132.52	143.47
中間溜分	117.80	137.90	189.70	217.15	331.82	378.28	378.25	378.22	377.79	387.17
重油 · Asphalt	59.30	64.70	64.80	72.47	92.66	120.94	115.81	111.67	110.57	116.40
合 計	287.90	325.20	398.60	475.71	698.21	802.86	821.40	823.44	823.76	834.36

〈자료〉 PTT

(3) 정제설비의 현황과 가동상황

정유회사는 *Bangchak Petroleum Co (BCP), Thai Oil Co*

(TOC), 옛소 등 3개사이다. 그 정제능력 합계는 24만 5천 B/D이다. 그외 국방성이 1천B/D의 소규모 정유공장을 지니고 있다. 정제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유공장은 풀가동하고 있다. 그 처리량은 다음 표와 같다.

〈표-10〉 泰國의 원유처리 및 생산

(단위 : 천b/d)

	처 리 량			생 산 량							
	원 유	콘덴세이트NGL	계	L P G	휘발유	제 트 연 료	등 유	경 유	중 유	아 스팩트	계
1975	143.1		143.1	3.4	29.9	14.0	4.2	37.4	45.2	1.8	135.9
1980	154.6		154.6	4.0	31.4	13.3	5.0	48.0	43.2	2.1	147.0
1985	156.8	7.0	163.7	4.3	35.2	17.7	2.8	57.9	36.6	2.5	157.0
1986	169.0	4.5	173.5	4.3	37.9	19.8	2.6	63.3	37.7	2.9	168.5
1987	172.3	5.5	177.8	4.7	41.5	19.4	2.4	63.2	36.8	2.7	170.7
1988	177.9	5.4	183.3	5.3	43.1	22.4	2.2	60.2	43.5	2.7	179.4
1989	220.9	3.4	224.3	6.0	46.5	28.4	2.2	72.6	60.1	3.0	218.8
1990	229.6	5.2	234.8	6.7	52.3	45.1	3.5	60.5	61.5	3.3	232.9

〈자료〉 Excise Department의 자료에서 환산

- BCP : 처리능력 6.5만B/D, 원유는 PTT가 조달. 대부분의 제품판매도 PTT가 수행
- Esso Standard Thailand : 처리능력 7.5만B/D
- TOC : 현재 능력 10.5만B/D, 콘덴세이트를 상시처리하고 있다.

(4) 정제설비의 증강 및 고도화 계획

현재 TOC와 BCP는 증설, 고도화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것 외에 옛소도 확장허가를 얻었다. 또 셸과 칼텍스도 신설허가를 받았다. 이들 정유공장이 완공되면 정제능력은 71만-75만B/D에 이를 것이다.

- TOC : '92년을 목표로 7.8만B/D를 증설 중이며 완료되면 18.35만B/D에 이를 것이며, Hydro Cracker와 Reformer도 건설 중임
- 옛소 : '95년까지 7만B/D, 2000년까지 4만B/D 증설 추진. 완료되면 14만 5천B/D, 18만 5천B/D가 될 것임.
- 셸 : '90년초 14만 5천B/D 정유공장 건설허가 취득. '95-'96년 중에 가동예정
- 칼텍스 : 13만B/D 건설허가 취득, '95년 완공 예정. 신설비가 상승하고 지가가 급등하여 신설 정유공장 건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11〉 泰國의 정제능력 확장계획

(단위 : b/d)

	1992	1993	1994	1995	1996	2000
BANGCHAK	78,000	99,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THAI OIL	183,000	183,500	183,500	183,500	183,500	183,500	183,500
ESSO	75,000	75,000	75,000	145,000	145,000	145,000	185,000
SHELL	-	-	-	145,000	145,000	145,000	145,000
CALTEX	-	-	-	130,000	130,000	130,000	130,000
計	336,000	357,500	363,500	708,500	708,500	708,500	748,500

〈자료〉 PTT

(5)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입

타이는 원유생산량이 적어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표-12 참조). '90년 지역별 수입비율은 중동63%, 아세안36%

이며 양 지역이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콘덴세이트는 대부분 수출되고 있다(표-13) 정제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표-14)처럼 많은 석유제품이 수입되고 있고 사실상 수출은 없다.

〈표-12〉 泰國의 원유 수입량

(단위 : 千b/d)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47	159	138	135	144	158	150	203	218

〈자료〉 세관부

〈표-13〉 泰國의 콘덴세이트 수출량

(단위 : 千b/d)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0	1.4	2.8	8.9	10.9	9.8	14.8	15.5	16.7

〈자료〉 Department of Mineral Resources, PTT의 자료에서 환산

〈표-14〉 석유제품 수입량

(단위 : 千b/d)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L P G	7.3	10.4	12.4	4.1	1.9	4.0	4.7	12.2	9.1
휘 팔 유	0.1		1.1	0.7	0.1	3.8	6.0	10.7	11.4
제 트 유	2.1	1.5	3.4	2.8	3.7	6.8	9.5	8.4	8.7
등 경 유	1.2	2.0	0.9	0.2					
중 경 유	20.1	21.6	43.8	36.8	36.3	45.9	63.1	74.4	95.6
중 유	10.8	21.4	12.0	3.7	1.4	5.8	5.0	4.2	29.4
計	41.6	56.9	73.8	48.3	43.4	66.3	88.3	109.9	154.2

〈자료〉 Department of Customs 의 자료에서 환산

(6) 석유제품 규격의 강화

휘발유의 납함량은 최대 0.4g/l 이지만 '92년 1월부터 최대 0.15g/l 로 감소되었다. 무연고급휘발유가 '91년 5월 도입되었으나 수입품과 함께 800개의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현재 세어는 10%에 불과하다.

보통휘발유는 83RON과 87RON 등 2종류이지만 83RON은 '92년에 폐지될 것이다. 고급휘발유 옥탄가는 95RON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92-97정도이다.

경유중 1.0% Sulfur Diesel은 '93년 9월 폐지될 것이다. 중유의 황분은 현재 3.5%이지만 방콕 등 도시지역에서 2000년까지 2.0-2.5% 삭감될 것이다.

(7) MTBE 등 합산소연료 도입동향

옥탄價 향상과 납함유량의 삭감에 의해 MTBE는 앞으로 주요 첨가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말레이시아의 Kuantan에서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5. 석유시장구조

(1) 가격결정구조

정부는 「가격규제 및 반독점법」에 의해 제트유를 제외한 전체 석유제품의 가격을 규제해 왔다. 규제는 도매와 소매의 2단계로 나누어지지만 '91년 6월부터 소비자가격의 규제가 철폐되어 현재 도매가격의 상한만 규제되고 있다. 그 결과 소매가격과 도매가격에서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품가격에는 정책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경유는 빈곤한 농촌의 주요 연료로 상대적으로 싸다. 또 환경에의 배려로 무연휘발유와 저유황경유는 세금이 가법다.

①정유공장 출하가격 = 싱가포르 최저 공시가격 + 보험료 + 운임 (환율변동 가미) 공장 출하가격 + oil Fund = 도매 상

한가격

②수입제품가격 = 싱가포르 Spot평균가격 + 보험료 + 운임

③소매가격 = 도매가격 + 소비세, 지방세, 판매마진

④LPG가격

난방용 : 연료대체 촉진 위해 싸다

자동차용 : 휘발유보다 싸다

산업용 : 경공업 원료로 사용되지만 우대책은 없다.

⑤Oil Fund :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해 '79년 도입, 그 후 특정 유종의 사용장려 또는 억제, 산업 및 사회정책 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 보조금에 의해 가격을 안정시킨다.

- 산업, 사회정책 목적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유가 싸고, 고급휘발유는 비싸다.

- 정유공장 출하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한다.

Oil Fund의 운용 방침은 '90년 8월에 이 기금의 파산에 따라 일부 변경되었으나 3억 바트의 하한과 15억 바트의 상한이 결정되었다. 만약 15억 바트상한에 이르면 소비세가 그 한도내에서 인상된다. 만일 소비세도 상한에 이르면 소매가격이 인하된다. 반대로 Oil Fund가 하한에 이르면 소비세가 인하되고 최후로 소비자 가격이 인상된다. 이러한 변경은 가격이 보다 자동적으로 또 빈번히 변동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단 소비자에의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1회 변경을 일정한도 이하로 억제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⑥향후의 가격정책 : 정부는 6월 소매가격 규제의 철폐에 이어 빠르면 8월 도매가격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가격급등을 우려해서 규제 철폐에 반대하였지만 향후에는 큰 변동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반대로 약화되고 있다. ♣

주요국의 휘발유·경유 소비자가격 비교

(단위 : \$/B)

	휘 발 유					경 유				
	한국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한국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1980	184.1	127.2	104.6	101.9	52.2	45.0	88.6	91.6	88.1	42.9
1985	186.2	99.7	87.9	77.9	50.2	58.8	70.1	74.4	63.6	51.2
1991. 12	103.9	155.8	140.5	151.7	44.8	38.1	89.5	110.3	95.4	52.5

1\$ = ₩760

주 : 프랑스, 영국, 서독 : 고급유연, 미국 : 고급무연